

“집착 없는 보살행으로 맑고 향기롭게”

길상사, 5월 19일 금강경 천일기도 1차 회향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여래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래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여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금강석 같은 반야의 지혜로 보살행을 닦아 성불하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과 더불어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대승경전 가운데 하나인 <금강경>을 천일동안 독송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보살도를 걷겠다는 불자들의 원력이 서울 길상사에 가득 찼다.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주지 덕일)는 5월 19일 경내 극락전에서 ‘금강경 천일기도 1차 회향식’을 봉행했다.

1차 회향식은 천일기도 입재 100일을 맞아 그간의 기도수행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한량없는 원력으로 보살행을 펼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다. 지난 2월 10일 입재한 ‘금강경 천일기도’에는 2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전을 독송하고 있다. 이날도 100여 명의 불자들은 주지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금강경>을 독송하며 부처님이 제자 수보리에게 설

한 ‘공 사상’을 가슴으로 느끼고 집착 없는 보살행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은 경전 독송을 마친 뒤 “기도 입재하고 100일이 훌쩍 지났다. 스님들도 좋다가 마룻바닥을 때린 적도 있고 단어를 놓친 적도 있지만 어떻게 지혜를 갖추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부

2월 10일 입재 후 100일째
200여 불자들 일심으로 독송
“나의 공덕 주위에 회향하며
下心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처님 귀가 큰 것은 상대방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의미다. 이처럼 여러분도 공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회향해 진정한 금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법문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천일을 넘어 평생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며 스스로 하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일기도에 참여한 최영희(53) 불자는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주지 덕일)는 5월 19일 극락전에서 ‘금강경 1000일 기도 1차 회향식’을 봉행했다.

“금강경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 천일기도를 꼭 하고 싶었다. 더운 날씨에도 멀리서 찾아올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900일 동안에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옆에 있던 다른 불자는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내 잘못도 남을 평가하는 일이 줄어들었다”며 “덕분에 줄곧 화를 잘 내던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져 가족·지

인들과의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덕일 스님은 지난 1월 주지 취임 이후 길상사가 서울을 대표하는 기도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불자들의 기도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매일 첫째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든 사내 대중스님이 동참하는 다라니 기도를 올리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인드라망대학, ‘청년플랫폼’ 문 연다

1주일·1개월 참여과정 신설

‘생태문화공간’의 회복을 위해 지리산 실상사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운영 중인 인드라망대학에 청년들을 위한 단기과정이 마련됐다.

인드라망대학은 ‘지리산 산내 실상사 인드라망대학에서 쉬자! 꿈꾸자! 펼쳐지자!’라는 슬로건 아래 1주일·1개월 과정의 청년플랫폼을 신설했다. 이 과정은 인드라망대학의 2년 정규과정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청년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청년플랫폼은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닌 2년간 진행되는 인드라망대학 과정

에 언제든지 참여해 함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1주일 과정은 명상·산책·공동 율력·텃밭농사·인드라망 제1실현지 산내 돌아보기·지적예불 및 스님 차담 등이 진행된다. 비용은 15만원. 1개월 과정은 1주일 과정 외에 주제별 세미나·도법 스님과 함께하는 독서인문학·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 탐방 등이 더해진다. 비용은 50만원.

청년플랫폼 참가자들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평화소통 훈련 워크숍에 50%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010-4360-7503

윤호섭 기자

노숙인 실제 생활 만화로 담다

종민협, 5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카카오페이지 연재

노숙인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만화로 펼쳐낸 웹툰 ‘길리언’이 연재를 시작했다.

종교계노숙인민권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는 실제 노숙생활을 담은 웹툰 ‘길리언’ 연재를 시작했다. ‘길리언’은 김태현 작가가 5년 동안 실제 노숙생활을 하며 겪은 내용을 풀어낸 것으로, 신웅 만화가가 그림을 맡았다. 5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카카오페이지에 연재되고 있으며, 총 22화 웹툰 연재가 종료되면 책으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종교계노숙인복지재단 측은 “이 웹툰을 통해 노숙인에 대한 부정 편견을 없애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시킬 바란다”며 “서로의 거리



웹툰 ‘길리언’ 내용 중 일부.

를 좁힐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민협은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지원을 위해 출범한 협력단체다.

박아름 기자

성북장애인복지, 봉축 맞아 무료 공양

5월 11~12일 지역민 위해 자장면 등 제공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1일과 12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공양을 실시했다.

11일에 관내 불자모임인 ‘작은나눔봉사단’ 후원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자장면을 무료 제공했으며, 12일엔 성북여성의용소방대와 함께 저소득 지역민 300여 명을 위해 무료 급식을 실시했다.

관장 선재 스님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월 초파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언제든지 지역사회와 함께할 나눔 행



5월 11일과 12일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된 무료 공양 나눔 행사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가 준비돼 있으니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부처님오신날, 세계 종교인들과 ‘화합’ 다져

美 연화정사, 봉축법회서 타종교 공존 모색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다민족·다문화’라는 주제 아래 6개 불교국가 의식을 바탕으로 개최한 연화정사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계 종교인들과의 화합을 다졌다.

통도사 워싱턴포교당 연화정사(주지 성원)는 5월 15일(현지시간) 경내에서 타종교인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천주교·기독교 정교회·유대교·자이나교·이슬람교·조로아스터교 등 세계 8대 종교인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1부 봉축법회는 25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불교 전통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화정사 주지 성원 스님은 법문에서 ‘빈자일등’ 일화를 소개한 뒤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올린 노파의 등불은 다음 생의 성불까지 보장받는 결과를



통도사 워싱턴포교당 연화정사는 5월 15일 봉축행사서 2부행사로 학술대회를 마련,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났었다”며 “보시의 결과는 결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는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정성에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2부 봉축 학술대회는 100여 명의 워싱턴 지역 내 종교인들이 참가해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였다. 특히 세계 8대 종교를 대표한 발제자들은 각 종교의 입장에서 ‘종교를 통

한 세계평화의 구현’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주제는 △붓다의 생애(조지워싱턴대 B.N 헤바 교수) △힌두교의 기초 교리와 일상생활(힌두미국재단 수드하 시바람 박사) △자이나교(국제 디깬베르 자이나기구 알케쉬 비빠니) △이슬람교는 어떻게 불교의 무집착을 보는가(세계 자원개발교육기구 타레 엘가하리 종교학 소장) △랍틱 교회-이집트 기독교

교 정교회(롬비 사만타 로이 박사) △불교와 침례교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조지워싱턴대 사이파 존슨 교목) △조로아스터교의 기원과 교리(다르에메흐 조로아스터교 사원 케르시 쉬로프) △천주교의 4대 성인(돈 루니 신부) 등이었다.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장 정우 스님(前 통도사 주지)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종교화합은 당위이기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불자들은 이 모임에 참석한 세계 8대 종교인들과 더불어 연화정사가 평화의 전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화정사는 “학술대회 예정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할 정도로 참석자들의 열기가 가득했다”며 “타종교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세계평화를 위해 각 종교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할지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화정사는 홈페이지(www.lotustemple-usa.org/blog)를 통해 누구나 학술대회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소원을 이루는 기도

(진언 주력 명상 및 광명사 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업보(번고)를 덜 겪고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자성을 밝히는 “지광불”과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주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옴까흠 진언 명상 기도”를 통해서 액운을 피하고, 타고난 나쁜 운명을 극복하는 수련법으로 자신의 삶에 행복과 건강,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을 얻게 됩니다.

지도스님 인해, 덕후 덕비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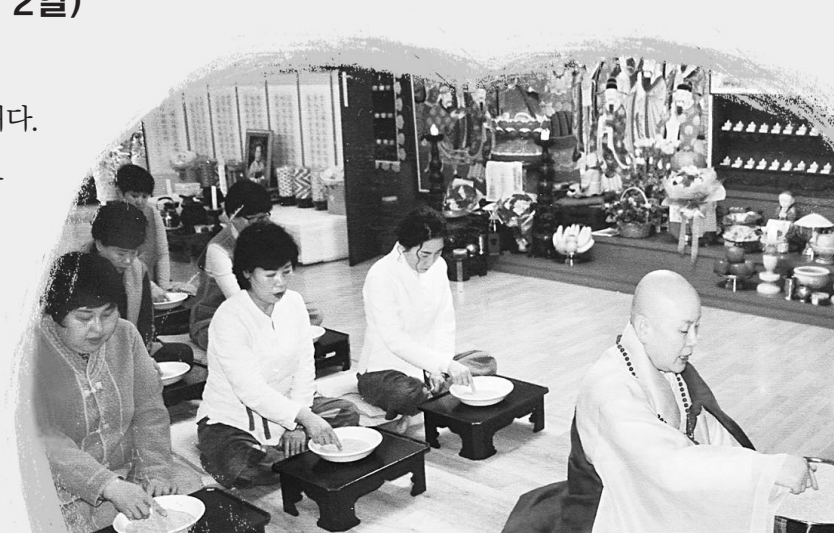
■ 기도일정 : 매주 주말 (1박 2일)

※ 소원을 이루는 기도에는 먼저 자신의 몸에너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옴·까·흠’ 3자 진언호흡으로 막혀있던 통로가 풀립니다.

■ 문의 : 대광명선원

010-8673-7558
010-5658-2657
031-335-2568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240번길 32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5월 31일까지
- ◆ 개강일시 : 2016년 6월 1일(수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